



## 영암군, 지적측량수수료

### 30% 감면 서비스 시행

정부보조사업 · 농촌주택개량사업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영암군은 올해 12월말까지 농업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본인 토지소유의 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정부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운저

장고 건립, 곡물건조기설치, 농촌주택개량사업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등이 해당된다.

측량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 농업인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군청 종합민원실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신청하면 감면혜택을 받게된다.

문점영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군민들이 보다 많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 화순군, 맞춤형 교육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견인

5개 분야 34개 과정 개설…PLS 제도 사전교육 병행



화순군이 농업 경쟁력과 농가 소득 증가를 위한 다양한 농업인 교육을 시작했다. 화순군은 지난 9일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과정을 시작으로 2019년 농업인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올해 개설 교과 과정은 모두 5개 분야, 34개 과정으로 강의 횟수는 75회다.

화순군은 1억2000만 원을 투입해 지역 특화 품목 중심의 재배 기술, 마케팅, 경영개선, 정보화 등 교육을 통해 지역의 농업 경쟁력을 키울 계획이다.

올 개설 교육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7과정 19회), 전문 농업 기술교육(12과정 16회), 농업인 정보화교육(6과정 18회), 강소농교육(4과정 12회), 농기계교육(5과정 10회)이다. 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농민은 교육 과정별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5개 분야 교육 과정 이외에 올해

로 12기를 맞는 올해는 농업인대학은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해 학습 내용을 더욱 전문화하고 심도 있는 토론과 심화 수업으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농업인대학 과정 유기농업과 대학원 과정 헌우과를 개설한다. 농업인대학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3개 과정을 개설해 졸업생 864명을 배출했다.

9일부터 시작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음면 순회 교육으로 신기술을 신속히 보급하고 복숭아, 블루베리, 옥수수 등 지역 농산물의 고품질 안정 생산을 위해 품목별 맞춤형 전문교육도 진행한다.

특히 군은 전 교육 과정에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교육을 포함해 농업인의 PLS 제도 이해력을 높이고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농업인의 정보화 활용 능력을 향

상에 이바지하고 있는 농업인 정보

화 교육은 기초과정과 중급과정으로 진행한다. 초급과정은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활용 등을 강의한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농업정보 수집·활용법을 배울 수 있다.

중급과정에서는 블로그와 SNS 홍보·마케팅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기법을 교육해 농신물 판로 개척을 돋пуска.

농업기술센터는 2008년부터 농업인 정보화 교육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을 중심으로 정보화 연구회를 결성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연구회가 매월 자체 교육을 하고 SNS 홍보와 팬퍼티를 열어 소비자와 소통하며 농산물을 홍보하도록 지원했다. 또 2009년부터 전남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에 출전해 매년 입상하는 등 정보화 농업인 양성에 힘쓰고 있다.

소규모 농가는 ‘부농의 길’을 걷도록 지원하는 경영개선 실천 교육인 강소농 교육은 2011년부터 지난 해까지 40명이 이수했다. 교육 이자들은 강소농 대전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도 고품질 농산물 생산교육, 새로운 소득 창출 교육, 농가 경영개선과 유통 교육 등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농업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기우기 위한 교육 과정인 만큼 농업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설맞이 우시장 대성황 활기 넘치는 ‘강진착한한우’

우시장 방문농가 300여명 신년맞이 떡국 행사도 열려



지난 14일 새해 설맞이 한우시장 대목장이 개장되었다.

이른 아침 7시 영리를 웃도는 한겨울 추위지만 300여명의 한우농가와 관련 단체에서 나와 황금돼지 기해년 설맞이 착한한우 대목장 경매

를 활기차게 시작하였다.

추위가 무색할 정도로 우시장의 분위기는 훈훈했다. 지난 3년간 이어 온 한우가격 상승유지와 강진군 한우산업 주요 정책인 맞춤형 한우가격 사업,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 등

이 성과를 나타낸으로써 한우농가 소득이 창출 안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시장에 출하한 한우농가와 관련 단체 관계자를 모두가 자신감과 희망이 넘쳐 훌륭했다.

또 강진완도축협이 주관하고 축산을 사랑하는 모임(가칭 축사모)이 지원봉사자로 나서 우시장을 방문한 3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신년맞이 떡국 나눔행사’도 가져 훈훈함을 더했다.

이날 한우경매장에서 출품두수는 총 305두로 송아지 가격은 비육우가 평균 350만원, 번식우는 360만원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다. 성우 역시 생체 1kg당 950~1만원대로 지속 상승세이다. 군은 2013년부터 ‘한우가격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매년 한우산업 시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한우산업 활성화와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였다.

경진=김영일 기자

### 담양 농관원, 설 명절 대비 농식품 원산지표시 등 일제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사무소는 민속 명절 설을 앞두고 설 성수품인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및 출산물이력제 준수여부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 예방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역할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별시법경찰 7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10명을 대거 투입하고 유관기관과 협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망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출산물이력표시제 준수여부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역할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꽈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주류, 수입화훼류(성묘용 국화) 등이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 장흥군, 동계 ‘스토브리그’ 성료

서울 갈현초 등 전국서 15개팀 300여명 방문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장흥군에서 열린 동계 전지훈련팀 축구 스토브리그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장흥군축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장흥초등학교, 장흥중학교, 정남진리조트구장 등 3개소에서 경기가 진행됐다.

올해 대회에는 서울 갈현초 등 15

개팀 300여명이 장흥을 방문해 선의 경쟁을 펼쳤다.

8일간의 예산 토너먼트 후 치러진 본선 4강전에서는 장흥초가 여수 미평초를 4:2, 목포 연동초가 광주 신화FC를 3:1로 누르고 각각 결승에 진출했다.

12일 열린 결승전에서는 장흥초가 목포 연동초를 3대 1로 꺾으며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올해 첫 전국 대회인 축구 스토브리그가 열흘 간의 대장정을 사고없이 무사히 마쳤다”며, “장흥군은 올해부터 대규모 체육대회를 유지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등 스포츠 마케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 여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큰 호응

여수시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90%까지 확대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보고 출산기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사업 지원자는 2017년 752명에서 2018년 993명으로 늘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산기정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만족도와 인기를 엿볼 수 있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은 소득유형과 서비스 기간, 태아 유형에 따라 다르다.

여수=송기홍 기자

##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몇몇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화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체 관리 방향